

국민의 새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공로백해양강국!
		배포일	2019. 1. 21.(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이형민, 사무관 정성근 • ☎ (044)200-5310, 5315, 5317	
	고래연구센터		• 해양수산연구소 김현우 • ☎ (052)270-0930	
보도일시		2019년 1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10년 전 백령도 왔던 점박이물범, 작년에 또 왔다 **- 해수부, 2018년도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조사 결과, 10년 전에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개체 3마리가 2018년에 다시 백령도를 찾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이동 실태와 출현 개체수를 추정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의 몸에 있는 반점은 개체별로 모양이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촬영된 점박이물범 반점의 형태를 비교하여 동일 개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백령도에서 촬영된 점박이물범 249마리와 2018년 6월에 백령도에서 관찰된 점박이물범 21마리를 비교하여 총 3마리가 동일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10년 전 백령도에 왔던 점박이물범이 작년에 또 왔다는 것이 확인된 이번 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박이물범의 습성 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총 316마리로, 2017년보다 75마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기상악화로 인해 2017년(5회 실시)보다 조사 횟수가 1회

적었기 때문에 2018년에 실제로 백령도를 찾아온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는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발견지점을 살펴보면, 점박이물범 316마리 중 85%는 물범바위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연봉바위와 두무진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18년도에 2회 이상 중복 관찰되었던 63마리의 정보를 이용하여 백령도 내 서식지 이동실태를 분석했으나 서식지 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개체별로 각각 선호하는 서식지가 있어 다른 곳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실시된 백령도 외 다른 지역의 점박이물범 서식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 가로림만에서 11마리가 관찰되었고 동해안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 백령도 바다에 길이 20m, 폭 17.5m의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를 조성하였다.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에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동안에는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 자리가 좁아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조성한 인공 쉼터는 자연석으로 만들었으며, 수면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4단계로 차등을 두어 점박이물범이 조석에 맞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 백령도를 찾아올 점박이물범들은 인공쉼터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류인 만큼,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올해는 새롭게 조성한 점박이물범 인공쉼터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성능 촬영 장비를 동원하여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서식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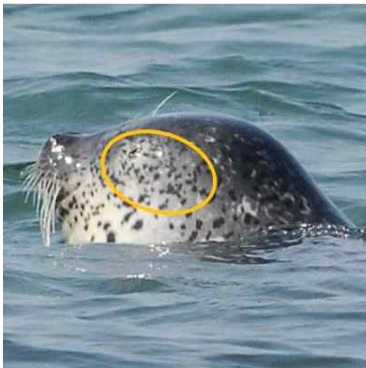
참고 1

점박이물범 생태학적 특성

종명	점 박이 물 범
사 진	
영 명	Spotted seal
학 명	<i>Phoca largha</i>
크 기	○ 성체 : (몸길이) 수컷 1.7m, 암컷 1.6m, (체중) 80~130kg ○ 출생 시: 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평균수명 30~35년)
분 포	○ 황해, 동해, 오향크해,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
특 징	○ 몸 색깔 :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 ○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3월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랴오둥만으로 이동 ○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축·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
비 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양수산부, 2007)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환경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문화재청)

참고 2

2008년, 2018년 발견된 동일개체 비교



080610_BSS_MBS_084

||



080611_BSS_MB_007

||



080908_BSS_105_015

||



180613_BSS_MB_132



180613_BSS_MB_142_2



180613_BSS_MB_175